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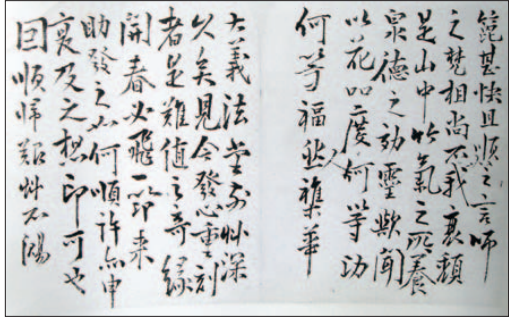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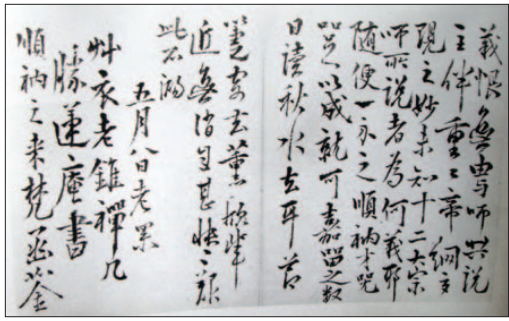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의 이 편지는 1854년 4월에 보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이다. 이 편지를 살펴보니 과연 초의의 기행이 기행인지 '눈이 환하게 밝아지듯'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인 듯, 경쾌해진 그의 감회를 이리 표현한 것이다. '금(금비)'란 무엇일까. 이는 금으로 만든 젓가락이다. 고대 인도에서 맹인의 인막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불가에서는 맹인의 가린 막을 금비로 제거하듯, 중생의 무지한 막을 말끔히 제거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과연 시절 불교에 몰입했던 추사의 일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초의노추의 선귀에게, 승연암에서 쓰다.
순 승려가 오면서 (가져온)그대의 편지는 눈이 환하게 밝아지듯 매우 상쾌합니다. 또 순의 말로는 그대의 모습이 오히려 나처럼 늙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산중의 대나무 (맑은)기운이 원천의 덕을 길러 준 효험이 신령해서인가. 듣자니 화엄으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어떤 공덕이며, 어떤 복인가. 그러나 화엄의 큰 뜻은 법당 앞 우거진 풀에 머문 지 오래입니다. 지금 드러난 발심을 깊이 새긴 것은 만나기 어려운 기한 인연입니다. 봄이 되면 반드시 지팡이를 휘날리며 오셔서 발심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거듭 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인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순이 돌아간 다기에 나오지 않는 글을 억지로 씁니다. 나머지는 이만 1854년 4월 5일 노과(仲衣老錫禪, 勝蓮庵書

順納之來 梵函如金 甚快 且順之言 師之梵相

편지받고 “눈이 환해지듯 상쾌”



응송 스님이 소장했던 추사 친필 사진 도판.

尙不如我衰頹 是山中竹氣之所養泉德之靈歟 聞以花嚴度人 何等功何等福 然 雜華大義 法堂前 深久矣 見今發心重刻者 是難值之奇緣 開春必飛一箭 來 助發之如何 順許亦申復及之 想印可也 因順歸 艱艱不 漏 姑不直 甲寅 四月 五日 老果

이 편지는 원래 응송 스님이 소장했던 사진판 자료이다. 추사의 나이, 69세 되던 해에 보낸 편지로, 아끼는 벗, 초의를 노추(老錫)라 불렀다는 점이 흥미롭다. 노추는 노고추(老古錫)의 준말로, 초의의 수행이 오래 수행하여 그 선기(禪機)가 송곳처럼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초

의를 한껏 높여 부른 말이라 여겨진다. 또 피봉에 '승연암(勝蓮庵)에서 쓰다' 라고 하였다. 과연 시절 그가 살던 집의 당호(堂號)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당호는 이 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승연'이란 그의 호는 1850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도 사용한 바 있고, 백파의 법승 설두(雪竇:1824~1889)에게 써준 '백벽(百壁)'에도 썼다.

따라서 추사 자신은 이미 속진의 고통을 벗어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화와 수행에 몰두했던 그의 과연 시절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던 시기였음이 확인된다. 이미 늙어 버린 추사였지만 동감의 초의는 오히려 '나처럼 늙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바로 '산중의 대나무 (맑은)기운이 원천의 덕을 길러 준 효험이 신령해서인가' 라고 놀린다. 특별히 대나무를 아꼈던 초의는 (중죽(種竹))을 지어 '대나무의)비교 끈을엔 지극한 이치를 품었고/ 바르고 깨끗함은 천기를 잡았다'고 노래했다. 이어 '무서리가 한 번이라도 내리면/ 초목들은 모두 떨어지지만/ 무성한 기개 더욱 굳세고/ 푸릇푸릇한 대나무 빛 점점 더 푸르네'고 말했다.

초의가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엔 일지암에서 내려와 새로 지은 대광명전에서 수행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광명전 초입에 들어서면 울창한 대나무 군락이 장관이다. 이 대밭은 초의가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광명전 앞의 대나무는 초의의 선기를 닮았는지 지금도 푸른 기상을 드러내며, 끈게 서 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10년 후 내다보는 안목 불교 미래 좌우하죠”

지현 스님 (영북 불화 청량사 주지)

눈이 오는 일요일 오전 어린이법회를 준비하는 주지 스님은 산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이들이 과연 눈길을 걸어 올 수는 있을까? 오늘은 안 되겠지? 그냥 혼자서 법당을 지켜야 할 거야' 스님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스님이 발길을 돌리려고 할 즈음 산길을 걸어올라 오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내를 건너고 산길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눈길을 헤치고 어린이법회에 온 아이들은 어느새 성큼 스님 앞에 다가가 안기며 반가움을 표한다. 스님은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아이들의 정성에 감동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이야기다. 스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신 미소를 머금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소임을 맡으면서도 매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어린이법회를 위해 청량사로 향할 만큼 어린이법회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성인이 올라가기도 가파른 산길의 경북 불화 청량사에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찾아와 복적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이 포교가 곧 불교의 미래라고 말하는 지현 스님의 큰 원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논산 관촉사, 영화사 등의 어린이법회를 맡던 중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해 주민들과 함께 이룬 불사의 기적에서 시작해 스님은 불교계 산사음악회의 포문을 연 장본인이며 어린이법회를 통해 지역사회 포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기 힘들겠다 싶어 영주까지 어린이 법회를 보러 다녔죠. 그때 애들이 지금은 장년이 되어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하면서 현재는 우리 어린이법회 후원자가 됐어요. 장학금도 주고 나들이 비용도 챙겨주는 등 열심이죠. 어린이법회를 나온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어 취업해 불전함에 보시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아이들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결국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룬 청량사 증진

스님은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했다. 조선시대 청량사는 정선 겸재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경관이 수려한 유서 깊은 절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부임할 즈음 청량사는 초라했다. 비가 세는 법당에 슬라브 지붕 덮인 요사채가 전부였다.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이불한 채, 쌀 한 말도 지고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게 불사를 해야할지 또 신도들에게 포교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일단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고추도 함께 따고 풀베기도 거들었다. 또 어떤날은 아이들을 경운기로 실어와 함께 놀고 해지면 데려다 주기도 했다. 마을로 내려가 마을회관에서 출장 법회를 열기도 했다. 스무 명이 산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산골 절에 어린이들이 북적

청량사 어린이 법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안동 영주에서 모인 아이들이다. 먼 길이지만 아이들은 일요일 법회만 기다릴 정도로 청량사에 오는 날이 신난다. “안동에 있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법회를 오려면 아침 8시 30분 차를 타야해요. 1시간 버스를 타고 내를 건너고 산을 타는 시간이 또 1시간이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렇다면 청량사 어린이법회에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법문을 짧게 하고 어린이 합창단 합주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거리라는 물론 스님과 함께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님이 고민까지 들어주며 상담해주니 아이들이 절에 오는 일이 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들이 법문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3분 내지 5분만에 법문을 마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거리를 제공해주니 모두 즐거워하죠. 또 아이들의 이름을 빨리 외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죠. 신상카드도 기록해 처음 절에 올 때 있던 옷이며 얼굴 표정도 기록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달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죠. 처음에 얼굴이 어두웠던 아이들도 법회에 나오면서 많이 밝아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결국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스님이 어린이법회를 청량사 안에서 활성화시킨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그전까지 영주의 불교회관으로 스님이 직접 찾아가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찰내 일요일 어린이 법회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인근 주변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친구들까지 데려오면서 일요일 어린이법회는 청량사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절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니 학부모들도 아이를 따라 절에 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에 스님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청량사회를 만들어 아이들이 법회를 보는 동안 학부모들은 교양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니 대부분의 농촌지역 사찰이 노년층으로 가득찬 것과는 비교되게 청량사의 일요일은 활기가 넘친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밴드까지 결성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성인 7인조 밴드 동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해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첫 데뷔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스님은 결국 어린이포교는 2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20여년 전부터 영주의 불교회관에서 출장 법회를 시작했어요. 절이 산에 있어 아이들이 오

서울 총무원 소임 맡으면서도

일요일 어린이법회 직접 진행
합주부 합창단 밴드 등 인기
학부모 모임 청량다회도 결성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

마을주민들과 함께 불사 완성
찾아가는 마을회관 법회 진행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 만들고자

2001년 청량사 산사음악회 시작
1만 관객 모이는 지역 최고 축제로

스님 혼자 내려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스님은 정기법회 때마다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신도들이 농사일 마치고 저녁 먹고 씻고 나오면 밤 9시였다. 스님이 법회를 마치고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절에 들어가면 밤 12시가 넘었다.

이렇게 스님은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며 포교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산 중턱에 있는 절의 불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이런 스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는 님아닌 다리가 불편했던 노보살이었다. 그녀는 너무 절에 오고 싶었던 나머지 손자의 등에 업혀서 10년만에 절에 온 것이다. 절에 오자마자 2시간 영불을 하며 법당에 앉아 기도하더니 고생이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 넣어두었던 것을 한 장 한 장 꺼내니 모두가 13만원이었다. 스님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 10억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절에 오고 싶었으면 그 돈을 그렇게 꼬깃꼬깃 모아 놓았을까 너무 감동을 했죠. 그 길로 사두었던 목재와 기와를 산으로 올리는 일부터 시작했죠.”

그간 불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산 아래서 헌집이 헐리면서 나온 기와와 나무를 사들였지만 절까지 올릴 수가 없었다. 스님은 노보살의 보시금으로 주민들에게 500원을 줄테니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오전 오후에 두 번씩 기와와 목재를 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돈을 받고 불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마을 사업이 되자 주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자재들을 나르니 보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지현 스님은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한다. 사진 왼쪽은 현재 청량사 어린이 법회 장면. 오른쪽은 1994년 영주불교회관 어린이 법회 시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납초

— 一人一燭 연꽃밑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밑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밑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랑 호랑이 양초 연봉 환기등 7.0 x 34cm 아랑 용 양초 연봉 환기등 7.0 x 34cm 육각초 7.0 x 34

외꺼비 후리지야 영원향 장.단(소버라) 향수림

백목향 목향 우리향, 백단향, 선홍매, 인상향, 대발향, 복향

말납양화 화 7.0 x 6.5cm

연화 대 9.5 x 11cm, 연화 중 9 x 10cm, 연화 소 7 x 6.5cm

• 도자기 인등 • 인등을 파라인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원기등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지현 스님은 ... 1971년 법종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문화사업단장 겸 총무부장, 12대~15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0년 조계종 포교대상 상을 수상했다. 좋은법 풍경소리 총재, 이웃을 돕는 사람들 대표이사, 경불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총 도감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m

가장 큰 공헌을 한 특공대 부대 5명 보살님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불사를 도왔죠. 지금은 70, 80대인 보살님들이에요. 현재 세 분만 남았어요. 그분들에게는 얼마전에 수계를 해드렸죠.”

화제의 산사 음악회를 열다

이렇게 불사도 포교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스님은 또다른 사업 하나를 구상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량사 산사음악회였다. 2001년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청량사 산사음악회다. 지금은 산사음악회라는 말이 흔하게 쓰였지만 당시만 해도 절에서 대규모 음악회를 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도심사찰에서도 열기 힘든 음악회인데 봉화 산중턱의 절 청량사에서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지현 스님에게는 가능했다.

“그동안 불교가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산중불교에서 대중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대중과 호흡하는 사찰 그리고 산사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였죠. 하지만 시작을 하니 또 도와주는 이들이 생겼더라고요.”

평소 알고 지내던 소리꾼 장사의 씨와 이종만 풍경소리 기획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음악회를 기획했다. '청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공연 전반에 대한 구성은 이종만 실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홍보팀을 꾸려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뿌렸다. 이렇게 무대를 펼치기 3000명이 모였다. 첫 해 초대가는 장사익, 한영애, 안치환이었다.

“정말 반응이 대단했어요. 당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이후 공연팀 홍보팀 음향팀 등을 만들어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이 끝나면 음향 홍보 조명 가수 등 항목을 정해 그해 음악회를 철저히 평가해 다음 공연에 반영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관객들과 호흡하지 못하면 다시는 부르지 않을 만큼 평가는 냉정해요. 매년마다 주제를 정해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해마다 1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청량사



2001년 시작된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다. 사진 왼쪽은 산사음악회 전경. 오른쪽은 음악회 준비중인 스님.

산사음악회는 지역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 인근 봉성면 축제 때보다 산사음악회 때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더 성황을 이룬다고 하니 청량사산사음악회는 이제 지역 최고의 축제가 된 것이다. 또한 사찰에서 시작한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 대학 교수는 축제 성공 사례의 예로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논문에 실을 만큼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저희 축제에 오신 분이 청량사가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들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음악회 또한 대중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불교 포교를 위한 또다른 방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불교의 이미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0년전에는 촛불 하나 들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축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불교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죠.”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총 도감을 맡아 1주일에 한번씩 서울의 조계종총무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 이렇게 종단의 소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에도 스님은 늘 새로운 포교를 구상한다. 대중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해주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우리 불교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년 후에 불교의 모습을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불교가 사회흐름에 뒤처지고 토속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에 특히 농촌 사찰에는 울 신도가 없어요. 앞으로 사찰 중심의 농촌살리기 운동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늘 세상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스님은 연구한다. 대중들의 고민을 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주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서 스님은 산골 오지 마을에서도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를 통해 대중들 속에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군중장교에게 주어진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필자가 살고 있는 전방 철책부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네 가지 활동을 골고루 균형 잡기가 힘들다. 전방부대에서선 선도활동과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선도활동 중에서도 상담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적응이 어려워 GOP에서 하강하게 된 병사를 상담하였다. 들어보니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서 선후임간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해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부대로 찾아가 그 병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병사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병사는 부대 내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냈다. 상담이란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며 진단과 조언, 해결방안의 제시는 그 다음 문제이다. 결국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상담자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부터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자리하고 있는데 ‘healing’은 ‘hearing’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듣기’는 단순히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담에다가 종교인으로서의 진솔한 조언과 종교적 가르침을 더할 때 진정한 듣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간부나 상담관과 구별되는 군중장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전문적인 기법이나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

‘healing’은 ‘hearing’에서 부터



그림 · 박구원

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확고한 전제이자 명제인, ‘상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기’를 머릿속에 꼭꼭 심어놓고 상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개인상담 못지않게 집단상담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군중장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대규모 인성교육이 아닌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육시간에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도했다. 인성교육과 집단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본 것이다. 지난해 10월 GOP에 투입되는 대대의 이등병과 일병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입동기들끼리 20명씩 조를 편성하여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이런 상담이 어찌 보면 단순한 작업일 수 있고 피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집단상담을 통해 중요한 철책근무를 하기 전에 전입 동기

들끼리 충분히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인지하고 전방에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힘든 군 생활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고 다른 전우들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들어주는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장교 신분이라 해서 병사친구들의 고민을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문제’로서 인지하고 듣는 다 자연스럽고 진지한 이야기 나눔이 어려울 것이다.

군대도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곳이다. 철책부대도 과학화가 되고 있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조직, 어느 사회보다 사람이 중요한 곳이 바로 군대다. 이곳 전방부대에는 밝고 행복하게 지내는 용사들도 많은 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다. 힘들어하는 용사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결국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불교가 지향하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며, 어디서든 자신이 사람이고 주인공이라는 가르침을 늘 기억하게 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군중법사임에 한없이 자긍심을 느낀다. 그래서 언제나 되뇌인다. ‘군대도 결국 사람이 다.’

이 지면을 빌어 철책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이 오늘도 두려움 없이 건강히 생활 할하기를 기원한다. 너무 석가모니불!



여정 군중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신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